

[내부보고]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성명	최경숙	김광희	권순지	
소속	우리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직위	원장	과장	연구원	
여행국	미국			
여행목적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 참석			
여행승인기간	2019. 6. 9.~ 2019. 6. 15.			
실제여행기간	2019. 6. 9.~ 2019. 6. 15.			

# 목 차

I. 출장개요 .....	3
1. 출장목적 .....	3
2. 방문국가 및 기관 .....	3
3. 출장단원 .....	3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	3
II. 회의개관 .....	4
III. 회의 주요내용 .....	5
1. 일반토의 .....	5
2. 원탁토의 .....	6
IV.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9
1. 주요성과 .....	9
2. 향후계획 .....	9
V. 참고자료 .....	10
1. 한국대표단 발언문 .....	10
2. 사진자료 .....	13

# 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가.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나. 권리협약 당사국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우리 원 홍보 및 향후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

## 2. 방문국가 및 기관

- 미국 뉴욕 유엔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 New York)

## 3. 출장단원: 총 3명

소속	직위	성명
우리원	원장	최경숙
우리원 대외협력부	과장	김광희
우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권순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정상환 사무관 외 동행

##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자	여행지역	수 행 내 용	비고
6.9.(일)	인천→JFK공항	· 숙소이동, 회의 준비 등	KE081편 (19:30~21:20)
6.10.(월)	뉴욕(유엔본부)	· 글로벌시민사회포럼 참석	CR4(본회의)
6.11.(화)	뉴욕(유엔본부)	· 개회식, 일반토의 및 연계회의 참석	GA홀, CR4
6.12.(수)	뉴욕(유엔본부)	· 일반토의 및 원탁토의 1, 2	CR4
6.13.(목)	뉴욕(유엔본부)	· 원탁토의 3 및 폐회식 참석	
6.14.(금) 6.15.(토)	JFK공항→인천	· 귀국	KE082편 (14:00~익일 17:20)

## II. 회의개관

- 가. 2019년 6월 11~13일에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는 178개국 협약 당사국을 포함, UN사무국 및 전문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장애인단체 및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 약 1700명이 참석함.
- 나. 이번 회의 주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변화하는 세계에서  
의 장애인의 포용보장(Ensuring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worl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RPD)’ 이었으며, 유엔본부 내 총회장(General Assembly Hall, 개막식) 및 회의실 4(Conference Room no.4, 본회의)에서 진행됨. 글로벌시민사회포럼과 본회의 외에 86개의 연계회의(Side events)가 개최됨.
- 다. 우리원은 본회의 1일차인 6월 11일, 11시 30분부터 약 13시까지 진행되었던 연계회의 ‘스포츠, 레저 및 문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 및 한반도 평화 증진(Promot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Sports, Leisure and Culture)’ 에 참여함(우리 원이 UN경제사회부 등과 공동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
- 라. 한국을 포함한 97개 협약 당사국(전체 당사국 중 약 5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기구, 국제장애연맹(IDA)을 포함한 39개 장애인단체, 그리고 아세안(ASEAN) 등 7개 정부 간 기구·그룹에서 참여한 대표단은 일반토의(General debate)를 통해 동 회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관련 법령,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전사항을 공유하였음.

- 마. 또한 전문가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총 세 번의 원탁토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포용증진을 목표로, 첫째, 기술,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ICT를 통한 권한부여(Empowerment), 둘째,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셋째, 스포츠, 레저 및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포용(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through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음.
- 바. UN사무국(DESA), UN전문기구(UNESCO, ILO, ITU, OHCHR, UNDP, WHO, 이상 6개 기구) 및 UN사무총장 장애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주요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은 본회의 3일째 ‘기구 간 대화’ 섹션을 통해 UN 및 해당기관에서의 장애인의 포용을 위한 전략, 실행계획 및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하였음.
- 사. 우리 대표단은 55번째로 진행된 일반토의 발언을 통해 동 회의 주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현했음.

### Ⅲ. 회의 주요내용

#### 1. 일반토의(General Debate)

- 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장애인의 포용 보장’을 주제로 협약 당사국을 포함,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장애인단체 및 네트워크 등의 발표가 진행됨. 발표자는 해당국 및 소속 기관/단체를 대표하여 이번 당사국회의 주제에 대한 소속기관/단

체의 관련 정책,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공유하여, 권리협약 이행 노력과 과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함.

나. 본회의 첫째 날 오후에 진행된 우리정부의 일반토의 발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진행함. 이 발언을 통해 CRPD 2·3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한 국내 이행상황 점검내용과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사실을 공유하였으며,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적 사회건설’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사회포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

## 2. 원탁토의

가. 원탁토의 1: 기술, 디지털화 및 ICT를 통한 장애인 포용과 권한부여

○ 원탁토의 1에서는 핀란드의 장애포용고문(Disability Inclusion Adviser)인 티티 메시넨, 유럽연합의 장애연락담당관(focal point)인 인마큐라다 프라센시아 등 총 4명의 패널이 발표함. 특히 네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G3ICT의 프로그램국장인 니르미타 나라시마한은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개별국가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은 범부처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프라센시아 담당관은 ICT를 활용한 유럽연합(EU)의 장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며, 이러한 장치들이 실제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로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특히,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생산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CT 기술발전이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 교육 제공의 필요함을 강조함.

나. 원탁토의 2: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 원탁토의 세션2에서는 우리나라 조한진 교수, 세계보건기구의 공공 보건전문가 안토니 듀틴, 유엔사무총장 장애인권특별보고관 까딸리나 데반다스 등 총 5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보건권(Right to healthcare)은 열악한 의료접근성 및 건강보험 가입 및 적용 등에 대한 제약, 선입견 등으로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데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함.
- 권리협약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장애인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였으며, 까딸리나 데반다스 보고관은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의 경우, 정부의 적절한 보건개입이 없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보건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또한 조한진 교수는 우리 정부가 2015년 제정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는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여야 함을 강조함.

다. 원탁토의 3: 스포츠, 레저 및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포용

- 원탁토의 3에서는 중국장애인연맹 부회장 용지아, 캐나다 공공서비스, 구매, 접근성 부의 칼라 퀴알트루 장관 등 총 5명의 패널이 토의에 참여하여 중국, 카타르, 스페인, 캐나다와 페루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등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성공사례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공유함.
- 캐나다의 칼라 장관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한 장애인올림픽 선수로서, 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당사자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을 언급함.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험이 사회의 다른 많은 영역들에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특히, 칼라 장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구별이 없는 상태가 보다 나은 상황으로 인식하여, 국내·외 장애 계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구호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에 대해 우리를 배제하고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외침도, “Nothing without Us(우리를 배제하곤 아무것도 아니다)” 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라. 기구 간 대화

- UN사무국(DESA), UN전문기구(UNESCO, ILO, ITU, OHCHR, UNDP, WHO, 이상 6개 기구) 및 UN사무총장 장애인권특사 등 협약의 주요 이해관계기관 및 관계자는 본회의 3일째 ‘기구 간 대화’ 세션을 통해 UN 및 해당기관에서의 장애인의 포용을 위한 전략 및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음.



## IV.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1. 주요성과

가. 제12차 회의주제에 대한 우리정부대표의 발언 및 현지대응 지원

나. 국제사회의 장애포괄적 개발관련 최신 동향 및 주요 이슈 파악 등

### 2. 향후계획

가. 우리 원의 CRPD 전문연수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문가 활용

- UN장애인권리위원, 국제장애연맹(IDA) 사무국 및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CRPD 전문연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등

나. 당사국회의 참석결과 공유를 통한 정부 및 민간의 관심 제고

- 장애포괄적개발협력연대(DiDAK) 연계회의(7.5.) 시 국내·외 관계자 대상 당사국회의 주요 내용 공유 등

## V. 참고자료

### 1. 한국대표단 일반토의 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Thank you Mr. Chairperson.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12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It is an honor to be here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at the twelf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장애인 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Our government is committed to upholding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RPD, and we continues to strive to make an inclusive society throug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우선 한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Firstly, our government submitted its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national reports to the committee of the CPRD on March 8 this year. It gave u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our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lso motivated our government continues to monitor our efforts to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ur society.

또한 한국정부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하반기(2019~2022년) 국가행 동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엔 에스캅과 협력하여 아 태지역 협력국을 대상으로 장애통계구축을 위한 국가컨설팅을 제공할 계 획입니다.

Secondly,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the Incheon Strategy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our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second half of the 3rd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3~2022). Based on the action plan, we, in cooperation with UNESCAP, will continue to provide national consultation on disability-disaggregated data collection to partner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한편, 한국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인 정책의 패러 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 환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

가’ 실현이라는 한국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Korean government plans to abolis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from July this year to make it an important turning point to shift the paradigm of the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supplier-oriented to the consumer-oriented one. Through this, our government will actively pursue our government’s philosophy of realizing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at everyone enjoys.

의장님,

Mr. Chairperson,

이처럼 한국정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장애인 포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In this changing world, our government has actively striv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will continue to make utmost efforts to make an inclusive society in cooperate with various stake holders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감사합니다.

Thank you.

## 2. 사진자료



▲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단의 모습



▲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정상환 사무관, 신용호 과장 및 주UN대한민국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와 개회식이 결된 총회실에서



▲ 제12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개회식이 열린 UN총회(General Assembly hall)



▲ 몬티안 분단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오른쪽)과 개발원 최경숙 원장(왼쪽)

2019. 6. 25.

제출자 김 광 희